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한가위 이동 자제”

코로나 장기화 랜선 제사·온라인 성묘 ‘비대면 명절’
백신접종 속도...‘위드코로나’ 시대 전환 기대감 커져
종합상황실 운영 등 방역 중점...재난안전 관리 총력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명절 풍경이 확 달라졌다. 가족과 친지간 오순도순 모여 따뜻한 정(情)을 나눴던 예년과 달리 랜선 제사, 온라인 성묘 등 비대면 명절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대면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휴대전화로 인사를 전하는 등 명절 분위기가 점차 바뀌면서 한편으론 우리 민족의 전통적·가족적 분위기가 점차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일이 넘도록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석 명절 지역 간 이동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가족과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만남을 갖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도 올해 조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전 국민 백신접종(1차)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광주·전남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고 선별진료소·종합상황실 운영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종합상황반, 성묘의료반, 교통반, 환경·청소반, 시민안전반, 소방반, 급수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22일까지 11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주요 사고대처·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한다.

이번 명절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점검 실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방역관리태세를 갖춘다.

또한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에 이용이 많은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성묘·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온라인으로 추모·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때,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웃 나와라! 모나와라!’ 추석 연휴를 사들인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명절을 소망하는 ‘한가위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웃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은 상시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문 여는 병원·약국의 운영시간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대책

본부를 운영,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대이동에 대비해 철도·항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도로 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역사·공항 등 방역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추석연휴 화재로 인한 사

고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우선 창고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시설, 요양시설 등 화재대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추석은 국민의 피로감을 고

려해 거리두기 방안을 일부 조정, 운영하는 만큼 방역과 안전관리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각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휴 마지막까지 방역과 재난안전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수 기자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

‘승부처 호남경선서 역전 드라마’ 의지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친문계 지지세를 등에 업고 ‘호남 심장부’ 광주로 달려갔다.

친문 열성 당원들의 지지세를 몰아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25-26일)에서 반드시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다.

광주는 지난 8일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진 곳이기도 하다. 권리당원만 12만명 넘게 포진한 광주·전남은 추석 당일인 21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시민에게 호소한다. 다음주 광주·전남 경선에서 결

선투표를 확정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 달라”며 지역 정서를 파고들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광 출신이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는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이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줄 본선 필승 후보는 이낙연”이라며 “이번 대선 경선에서 최초로 결선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들 3인의 지지선언이 그간 중립지대에 머물던 20명 안팎 친문 의원들의 ‘도미노 합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함께 호남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캠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힘, 그 원천은 도덕성에서 나온다. 광주 정신하면 도덕성”이라며 광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날 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의 도덕성을 비판하며 “당선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당선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오늘 태풍 영향 비바람...추석 당일 ‘비’

제14호 태풍 ‘찬투’가 지나간 뒤 추석 연휴의 시작인 18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추석 당일엔 비가 예보됐지만, 연휴 기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태풍으로 인한 위험기상 전망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기상정보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태풍 ‘찬투’가 17일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전남 남해안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태풍이 지난 뒤 추석 연휴 전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21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요란한 비가 내린 후 점차 그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준 제주도 남서쪽 먼 바다에 위치한 태풍 ‘찬투’가 점차 북동

진하며 17일 새벽부터 오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남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17일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전남 동부지역에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명진 기자

연휴 날씨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18일(토)	19일(일)	20일(월)	21일(화)	22일(수)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20~22 일자 신문 읽니다	17/28℃	17/28℃	18/28℃	22/28℃	18/30℃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	12-13면
▶ 집에서 만드는 추석음식	14면
▶ 연휴 생활정보	15면
▶ 연휴 볼만한 영화	16면
▶ 가볼만한 언택트 여행지	17면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28

곧 도착! 주차하ㅏ고 갈게!!!

오후 5: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